

신종 유사경유 전국서 “활개”

석유관리원, 착색제 뺀 등유 섞어 유통 ... 무더기 적발

특정 성분을 뺀 등유를 경유에 섞은 새로운 수법의 유사경유가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.

석유관리원은 최근 한 달간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검사할 때 쉽게 검출되는 등유의 성분인 착색제와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섞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, 주유소 등 5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.

유사경유는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, 영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구분하기 위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착색제와 식별제를 첨가하게 돼 있다.

석유관리원 관계자는 “착색제와 식별제는 기초검사 단계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해당성분을 제거해 등유를 섞은 새로운 수법”이라며 “정밀검사를 통해 신종 유사경유를 가려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관리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신종 유사경유 판매를 정밀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23>